

바람직한 가정의례 정착과 지도자의 역할

李永信*

目 次

- | | |
|------------------------|------------------------------|
| I. 서 론 | VI. 바람직한 가정의례 정착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 |
| II. 가정의례의 참 뜻 | VII. 구체적 성공사례 |
| III. 가정의례의 역사 | VIII. 결론 |
| IV. 사회적 문제로 퇴색된 가정의례 | |
| V. 가정의례 실태에 대한 의식 및 평가 | 참 고 문 헌 |

I. 서 론

목전에 두고 있는 21세기 사회가 20세기 사회와는 여러 면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은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

21세기로 치닫는 길목에서 사회외부로부터 불어닥치고 있는 세계화와 개방화의 압력은 사회 내적인 모습을 새롭게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그 동안 제주 사회의 양대 주력 산업이었던 감귵과 관광산업을 새롭게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만 머물지 않고 사회전반의 구조를 개혁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인의 의식 또한 과거의 것을 답습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남겨두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위기의 상황에서 불어닥치는 도전에 잘 응전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의식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과제 중에서, 제일 먼저 검토해야 할 과제는 제주인의 바람직한 의식의 문제, 특히 이 가운데서도 가정의례 의식과 관행에 관련된 것들이다.

* 地域社會 指導者 課程

제주사회는 그 동안의 급속한 사회구조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가정의례에 관한 의식과 사회적 행위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새로운 제도와 의식을 요구하는 세계화시대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정의례는 전통적인 미덕이라고 보기에는 비합리적이고 허례허식적인 측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날의 것은 단지 ‘옛 것’이라는 뜻에서 ‘민족의 얼’, ‘도민의 얼’ 등등으로 미화하고 과대포장되기 일쑤다. 지난 날의 것이니까 소중한 게 아니라, 한국적, 제주적인 삶의 지혜가 담겼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의 초점은 가정의례의 의식과 절차 자체의 면제를 다루는 데 있지 않다.

가정의례를 둘러싼 사회관계(가정의례를 직접 행하는 사람들과 의례에 참여하는 방문자와의 관계)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상례 그리고 소기의례시의 사회관계 속에서 관행으로 구조화된 것 중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온 것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구체적 체험 사례 및 바람직한 가정의례 정착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을 논하게 된다.

II. 가정의례의 참뜻

가정의례라고 하면 우리들의 주변에서 통상적으로는 관·혼·상·제의 4가지 가정의식을 말한다.

그러나 가정의례의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단 관·혼·상·제만이 가정의례가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가정의례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평생동안 살아가는 사이에 발생하는 기쁜일 또는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이를 처리하고 행하며 지켜나가야 할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의식절차를 총칭하는 것이다. 사람은 예로부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한평생 동안의 삶을 보람있고 그 가치관을 참되게 영위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의례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될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도덕적인 근본예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혼례나 상례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할 뿐 아니라 현대인으로서의 지키기가 힘든 점이 많고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어버이에 효성을 다하며 형제와 일가친족이 애족하며 특히 조상님을 받들어 모시고 숭상하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 계승하여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최근에 와서는 위와 같은 가혹한 참뜻은 매우 좋은 일로서 본받아야

할 것이나 너무 지나치게 형식에 그치거나 진실과는 거리가 멀므로 범위를 정하여 국법으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시초는 서기 1969년 1월 16일 제2079호로 공포된 바 있고 이는 현실정에 맞도록 의례간소화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Ⅲ. 가정의례의 역사

1. 혼례의 역사

우리 한민족에 있어 가정의례로서의 혼례의식이 언제부터 탄생하였으며 또한 그 형태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시기와 형태를 알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라 세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인류역사의 최초에는 제도적이나 의례적인 어떤 규범이 없이 단지 종족보존의 차원에서 무질서하게 남녀관계가 이루어졌던 소위 난혼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일군의 남자와 일군의 여자들이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혼인하는 군혼제도가 있었음을 모드건앵겔스의 학설로 나타나 있다. 그런가하면 한사람의 여자가 여러 사람의 남자와 함께 혼인하는 일처다부혼제도와 그 반대인 일부다처혼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는 지금도 간혹 볼 수 있는 것이 그 습속인 것이다. 그런데 2세기경에 중국사람이 지은 삼국지의 위지동이전이라는 책 중에는 예 나라 사람들이 같은 성씨 끼리는 결혼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어서 예족은 중국의 동북부와 한반도 중앙부에서 생활하였으며 만주지방의 일부에서 남하한 경향이 있으므로 우리 한민족이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는 삼국시기 이전인데 이 때는 미녀를 고구려에 보내어 조비로 삼았다는 설이 있고 또한 10세 정도의 여자를 혼약 했을때는 미리 장래 시집갈 곳(신랑댁)에 데려가서 장래 시부모가 될 사람이 양육한 후 혼기에 집으로 돌려 보낸 뒤 금전적인 댓가를 받고 혼인했다는 설도 있다.

삼국시대의 혼인제도를 살펴보면 고구려에서는 혼담이 이루어지면 뒷 뜰에 서옥이라는 작은 집을 지어서 저녁때 사위 될 사람이 찾아와서 문 밖에서 자기이름을 알리고 무릎을 꿇어 앉아서 절하고 여자와 동침할 것을 요청하면 이를 허락하였다고 하며 이렇게 하여 혼인이 이루어지면 사위와 장인은 일생동안 한 집에서 사는 수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구당서에 의하면 신라시대에는 근친끼리 혼인하는 예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부계나 모계를 가리지 않았으며 신라의 왕비의 혼인 53건중 13건도 근친혼이었다. 한편 이 시기

의 발해족의 결혼풍속을 보면 남자덕과 여자덕에서 혼인합의가 이루어지면 남자가 신부될 여자를 훔쳐오는 것이 발해의 혼속이었다. 이와 같은 여러 형태의 혼인제도의 혼속속을 거치면서 조선조 시대에 들어와서는 주자가례의 전래와 예학의 변천 발달함에 따라 혼인은 일생일대의 최대과제인 가정의례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2. 상례의 역사

상례라고 하면 사람이 사망 하였을때 장례를 치르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장례 절차의 기원은 언제이며 어떻게 변천하였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절차가 확실하게 규명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처음 발생한 때에는 죽어서 무덤을 만들거나 지금과 같은 장례절차는 치른 일은 없었다고 한다. 삼국지의 기록에 의하면 동옥저에서는 가매장제도가 있었으며 가매장시에는 길이가 열발이나 되는 큰 덧관을 사용하였으며 이 한쪽에 문을 달아 두었다가 사람이 죽으면 우선적으로 땅에 가매장 하였다가 살이 완전히 부패되어서 뼈만 남았을대 그 유골만을 추려서 다시 여기에 넣어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 세상에 무덤이 생긴 것은 매우 오래된 일로서 그 시기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알지 못하나 구석기시대의 중기 이후부터로 보는 설이 있다.

그런데 이 때에는 무덤에 부장품이 없었으며 그 후 구석기시대의 후반부터는 부장품이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와 같이 가매장 하였다가 살이 모두 부패된 뒤에 뼈만을 추려서 그 곳에 다시 안치하는 제도가 세골장 풍속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그 의전절차도 지금과는 판판이어서 한 집안 사람이 죽으면 모두 한덧관에 넣었으며 나무에다 죽은 사람의 생전 모습을 새겨놓는 풍습도 있었다. 그 뿐 아니라 이 시기에는 흙으로 만든 가마술에 쌀을 넣어서 덧관주위에 매달아 놓았는데 이는 죽은 사람이 저승으로 갈때의 길 양식인데 요즈음에 사람이 죽으면 사망자의 입속에 쌀을 넣어주는 풍습과 같은 것이며 이 풍습은 위와 같은 풍습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리고 삼국시대에 와서 고구려 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집안에 빈을 꾸며서 모셔 두었다가 3년 뒤의 길일을 택하여 장례를 치르며 부모나 남편이 죽으면 3년간 복을 입었으며 형제는 3개월 복을 입었다고 한다. 장송할 때에는 춤을 추며 음악을 연주하였다 한다. 백제시대에 있어서는 고구려와는 달리 부모나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3년간 복을 입었으나 그 외에는 장례를 마치면 그 날 복을 벗었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화장제도가 성행되었으며 초기에는 아직도 예학이 사회제도와 같이 발달되지 못하였고 통일적인 의례제도가 미비한 시점이어서 장례제도와 그 절차가 일치하지 못

하던 중 말기에 들어서면서 유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주자가례가 도입되어 점차 근대적인 장례의식에 근접하기 시작하여 조선조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예학의 발달과 서기 1577년에 율곡선생이 저작한 격몽요결이라는 예서와 서기 1760년경에 도암 이재선생이 저작한 사례편람의 탄생에 따라 상례에 관한 의례절차가 통일되어 정착되기에 이른 것이다.

IV. 사회적 문제로 퇴색된 가정의례

제주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정의례 행위는 많은 수의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고 준수되는 행위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많은 수의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고 준수된다고 해서 그 행위가 바람직스럽게 용인되고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주지역에서 행해지는 가정의례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 또한 사회문제의 영역으로 포괄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가정의례 행위중 겹부조 행위, 답례품을 주고 받는 행위, 소기 종일 봉제, 음식물의 과대 접대, 과다한 조화진열 등이 이러한 예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이 사회문제의 영역으로 위치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곧 일탈행위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정도는 해당 사회의 조건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절대빈곤이 만연해 있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부조행위는 가정의례를 행하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그 내용도 일을 거들어준다든지, 긴요나 물품(가령, 쌀)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산업화, 자본주의화되면서 경제적인 절대적 생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부조행위의 내용도 일정한 변화가 수반되었다. 그렇지만 산업사회에서도 부조행위는 적지 않은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원자화되기 쉬운 사회관계를 통합시켜줄 수 있는 측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상 자체로만 보면 부조행위는 공동체적 연대감의 한 표현이자 이를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의례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거나 규정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이 산업사회적 조건과 적합치 않거나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합리성의 기준과 동떨어져 있을 때일 것이다.

가령 부조문제를 예로 들어보면, 제주사회에서 부조행위가 사회문제로 규정될 수 있는 부분은 부조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부조 또는 겹부조와 연관될 때이다. 이중부조

또한 곽부조는 제주사회에서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 관행중의 하나이다. 가정의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의례를 행하는 가정의 두 사람 이상에게 부조를 하거나 남편과 부인 등 가족 구성원 각자가 동일한 가정의례에 참여할 경우 각기 부조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곽부조는 분명히 바람직스럽고 합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곽부조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과소비적 행동패턴과 결부되면서 개인적, 가정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당장에 닥치는 어려움은 가족 단위로 볼때 경조비 지출규모가 증가한다는 점일 것이다. 더우기 이러한 경조의 표시가 과거처럼 일을 거든다든지 소액의 물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족구성원별로, 경조사에 직접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조비는 지출대상자들에게 매우 부담이 되는 관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가정의례시 과다한 음식물 제공과 답례품 제공도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 관행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의례를 담당하는 당사자의 의례비용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된다. 또한 제주사회의 가정의례에서 문제되는 것들 중에는 제주사회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한국사회 일반에서 문제되는 것들도 있다. 혼례기간, 장제기간, 소기, 곽부조와 개별 부조, 답례품 주기, 과다한 음식물 제공 등은 유독 제주사회에서만 문제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육지지역의 경우 결혼 피로연은 통상 1일에 한정되어 있고 장제일은 3일장이 지배적이다. 소기는 100일 탈상을 주로 하며 제사로 봉제된다. 부조금의 경우, 결혼시에는 예식장에서 접수처를 이용하고 있고 초상시에는 단상에만 상부조를 하고 있다. 제주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는 개별 부조 또는 곽부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당시기 해당사회에서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 되었던 제도나 관행이 사회적 상황과 조건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이미 제도자체나 사회적 구속력을 지니게 됨으로 해서 그것의 변화도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의 예로 가정의례를 들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개선될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V. 가정의례 실태에 대한 의식 및 평가

현단계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정의례의 실태에 대한 평가는 가정의례 실태에 대한 지역사회 성원들의 의식을 반영해 낸다. 이러한 평가는 가정의례별로 문제시되는 내용들의 우선순위를 점검함과 동시에 내용별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판별해 내는 작업을 통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1. 혼례의 의의

혼례란 일정한 의식을 통하여 남녀간의 결합을 사회적으로 공인받는 것이다.

예로부터 혼인은 인륜 도덕과 만복의 근원이라 했다. 두 사람의 즐거움일 뿐 아니라, 사회 구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에 관혼상제의 사례 중에서도 가장 경사스럽고 중대한 의식으로서 몇 가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는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사람은 먹는 것,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욕망 또한 갖게 되는데, 함부로 아무하고나 관계를 해서는 안되므로 일부일처의 혼인이라는 관계를 이루어 낸 것이다.

둘째로는 정신적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우선 사랑으로 결합하여 서로 존중하며 평생동안의 회로애락을 같이하여 일생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 이 사회의 첫 바탕이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며, 여기서 자녀를 낳아 기르고 함께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네째로는 사회적 규범인 관습이나 도덕, 법률 등과 같은 제도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2. 제주 혼례의례의 문제점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므로 만복의 근원이 되는 인간대사이기 때문에 그 의식절차는 엄숙하고도 정중하게 치뤄져야 할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허나 현재 제주사회에서 행해지는 혼례의례는 너무나 번거롭고 허례허식이 성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 이상의 혼수품 마련으로 가정파탄을 가져오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며 이것만이 성대한 혼례식으로 대중들은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제주사회에서는 옛적에 혼례를 치루기 위해 닷새 동안이나 끌었던게 일반적이었다.

- 1) 혼례 전전날 - 신랑, 신부 양가에서 돼지 잡기
- 2) 혼례 전날 - 가문 잔치
- 3) 혼례날 - 혼례 잔치
- 4) 혼례 다음날 - 신부집에서 사돈들끼리 간단한 잔치
- 5) 혼례 다음 다음날 - 신랑집에서 사돈들끼리 간단한 잔치

요즘에 와서는 과거에 5일이던 잔치기간이 3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3일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간소화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남에게 뒤질세라, 혹은 사돈들간에 대결이라도 하는 듯 돼지를 10여마리 이상씩 잡는 문제라든지, 답례품, 또한 과다한 음식물, 이로 인해 제주도의 미풍양속인 조낭정신은 간곳 없어지고 과소비는 물론, 인력낭비까지 성행되고 있으며, 특히 결혼식날 저녁에 치뤄지는 피로연은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고 있는 데다가 불필요한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게 경험하신 분들의 지적이다.

3. 혼례의례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

1) 혼례의례시 지역별로 사람들이 갖는 문제점 인식

“요즘에 행해지는 혼례의례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82.9%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경우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들은 다른 두 지역에 비해 가정의례 개선운동이 상대적으로 덜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인데, 이것은 그 만큼 간소화운동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그 필요성 인식의 정도가 떨어지고 또 현실적으로 운동의 조직화가 덜 일어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 혼례의례시 지역별로 사람들이 갖는 문제점 인식 (단위 : %)

응답범주		지역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N)
혼례 의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89.9	77.8	84.3	75.9	82.9(600)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 않다		10.1	22.2	15.7	24.1	17.1(124)

자료 : 세계화추진제주협의회, 「세계화시대 제주인의 의식, 이대로 좋은가」, 1996. p.47

2) 혼례의례에서의 내용별 심각성 정도 평가

여기서 혼례의례시 제주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의 심각성 정도를 그동안 문제되는 것으로 거론되어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심각하다’와 ‘다소 심각하다’를 합쳐보면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심각한 것으로 응답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표 2〉 혼례의례에서의 내용별 심각성 정도 평가

(단위 : %, 점수)

구 분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별로심각 하지않다	전혀심각 하지않다	계	평균 점수
① 호화혼수	35.8	40.1	23.7	0.4	100.0	3.11
② 자택, 식당등의 안팎잔치	25.6	40.0	32.1	2.3	100.0	2.89
③ 축하화환의 과다진열	29.8	40.4	27.1	2.7	100.0	2.97
④ 남편과 아내의 따로 부조	43.7	39.3	12.9	4.1	100.0	3.23
⑤ 답례품 주기	31.4	37.0	27.0	4.6	100.0	2.95
⑥ 특급호텔에서의 예식	29.4	32.2	32.7	5.7	100.0	2.85
⑦ 2~3일에 이르는 잔치기간	16.7	38.7	38.9	5.7	100.0	2.66
⑧ 음식물 수가 많아 낭비가 되는 문제	38.8	43.8	16.4	1.0	100.0	3.21

주 :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심각성의 정도가 높다.

자료 : 제주도, 「건전 가정의례 정착을 위한 토론회」, 1996. p.15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의 심각성 정도가 가장 큰 것은 ④ 남편과 아내의 따로 부조, ⑧ 음식물 수가 많아 낭비가 되는 문제, ① 호화혼수, ③ 축하 화환의 과다한 진열, ⑤ 답례 품 주기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고, ⑦ 현재의 2~3일에 이르는 결혼잔치 기간은 심각성의 정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별 평가는 ‘매우 심각하다’와 ‘다소 심각하다’의 두 가지 응답범주만을 산술적으로 합해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응답범주들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4점 척도로 얻은 점수를 기초로 응답자 전체의 내용별 평균점수를 보면 앞의 순서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④ 남편과 아내의 따로 부조하는 행위의 평균점수가 3.23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⑧ 음식물 수가 많아 낭비가 되는 문제 3.23점, ① 호화혼수 3.11점의 순으로 높다. ⑦ 잔치기간은 2.66점으로 앞서서와 동일하게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4. 상례의 의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가 일생 동안 함께 살아오던 가족·친척·친지들과 영원히 작별하는 것이므로, 이 이상 슬프고 비통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례는 이러한 슬픈 감정을 질서있게 표현하면서 마지막 이별의 예를 다해 치루어야 한다. 즉, 예는 소홀해서는 안

되고, 너무 지나쳐도 안되며, 그 때의 슬프고 애절한 마음을 질서있게 표현하며, 정중하고 경건하게 치뤄야 한다.

그러나 상례를 치름에 있어서 가장 앞서야 할 것은 재물보다 지극한 슬픔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예를 행한다고 하면서 의식절차에만 치우쳐 슬픔이 없다면 예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슬픔을 핑계삼아 예를 소홀히 한다면 사람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상례는 마땅히 슬픔과 예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예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제주 상례의례의 문제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가족과 친척·친지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웃과 마을사람 모두에게도 슬픈 일인 것이다. 그렇다면 가족·친지는 물론이며 이웃과 마을주민 모두는 슬픔에 동참해서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옳지 않겠는가?

그러나 제주지역 상례의례는 상주들의 의복(베옷)을 제외하고는 혼례를 치루는 집인지, 상례를 치루는 집인지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슬픔을 당한 집 마당에서 벌어지는 옷놀이 놀음판이며, 돼지를 비롯한 술과 음식물을 잔뜩 준비해 놓고 실컷 먹고 마시는 일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가 아닌 것이다. 특히 여상주일 경우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하면 정중하면서도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를 것인가에 대한 염려보다는, 음식메뉴와 답례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제일 먼저 걱정하며 부조 받을 준비에 바쁜 나머지 본래 상례의 의의를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고인에게 잡다스런 음식메뉴와 답례품의 종류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또한 육지의 경우 장제일은 3일장이 지배적인데 비해 제주지역은 5일장, 혹은 7일장까지 하는 실정이며, 육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개별부조 또는 겹부조를 제주지역에는 보편화되어있는 실정이다. 이 모든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제주지역 상례의례는 허례허식적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6. 상례의례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

1) 지역별로 사람들이 갖는 문제점 인식

상례의례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

변에서 행해지는 또는 직접 행해보신 상례의례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74.7%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별, 소득 수준별로 보면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에서 가장 많고, 북제주군에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혼례의례에서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소득수준별로는 100~200만원대의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반응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으며, 200만원 이상의 사람들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상례의례에 대해 지역별로 사람들이 갖는 문제점 인식 (단위 : %)

응답범주		지역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N)
혼례 의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80.6	71.4	71.0	74.1	74.7(540)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 않다		19.4	28.6	29.0	25.9	25.3(183)

자료 : 세계화추진제주협의회, 「세계화시대 제주인의 의식, 이대로 좋은가」, 1996. p.47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별로는 제주시 80.6%, 서귀포시 71.4%, 북제주군 71.0%, 남제주군 74.1%가 상례의례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 상례의례시 내용별 심각성 정도 평가

상례시에 심각성의 정도를 측정한 내용도 혼례의례시와 마찬가지로 8개 문항이었다. 이러한 문항들도 그 동안 제주지역사회에서 상례의례시의 문제점으로 광범위하게 지적되어 온 것들이다.

〈표 4〉 상례의례시 나타나는 문제들의 심각성 정도 평가 (단위 : %, 점수)

구 분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별로심각 하지않다	전혀심각 하지않다	계	평균 점수
① 3일을 초과한 장례기간	11.5	47.2	36.3	5.0	100.0	2.65
② 굴건제복 착용	8.2	30.6	50.0	11.2	100.0	2.36
③ 조화의 과도한 진열	33.5	41.5	24.5	0.5	100.0	3.08
④ 음식물 수가 많아 낭비	33.5	48.5	17.3	0.7	100.0	3.15
⑤ 답례품 주기	29.2	38.9	26.8	5.1	100.0	2.92
⑥ 여자 문상객이 상주마다 부조	53.3	39.3	6.3	1.1	100.0	3.45
⑦ 남편과 아내가 따로 부조	45.6	41.0	10.7	2.7	100.0	3.30
⑧ 기과, 단체명의 신문 부고	25.0	37.2	33.0	4.8	100.0	2.83

주 :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심각성의 정도가 높다.

자료 : 제주도, 「전전 가정의례 정착을 위한 토론회」, 1996. p.15

응답범주 ‘매우 심각하다’와 ‘다소 심각하다’를 합하여 보면 ⑥과 ⑦의 경우가 빈도 수가 가장 많다. 반면에 ②는 심각한 문제를 지닌 것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굴건제복 착용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점차 자연스럽게 사라져갈 것으로 많은 응답자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평균점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⑥, ⑦, ④ 등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아 다른 내용들에 비해 심각하게 평가되고 있다.

3) 소기의례시 나타나는 문제들의 심각성 정도 평가

소기의례시에도 문제로 제기되는 내용들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여기에서는 문상객의 조문을 받는 문제, 소기의 종일 봉제, 음식물 낭비, 답례품 및 부조행위 등에 관한 6개 문항이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 절반이상을 훨씬 초과한 사람들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중에서도 ⑥에서가 심각하다고 보는 빈도가 가장 많다. ⑤와 ③의 경우도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②와 ①은 절반을 약간 넘어서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내용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5〉 상례의례시 나타나는 문제들의 심각성 정도 평가

(단위 : %, 점수)

구 분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별로심각 하지않다	전혀심각 하지않다	계	평균 점수
① 문상객의 조문을 받는 행위	21.9	39.5	35.5	3.1	100.0	2.80
② 소기를 하루종일 지내는 문제	13.3	41.1	39.3	6.3	100.0	2.61
③ 음식물 수가 많아 낭비	34.7	48.2	16.1	1.0	100.0	3.17
④ 답례품 주기	30.5	39.6	25.5	4.4	100.0	2.96
⑤ 남편과 아내가 따로 부조	44.1	43.7	9.27	3.0	100.0	3.29
⑥ 여자문상객이 여상주마다 부조	52.3	39.9	7.0	0.8	100.0	3.44

주 :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심각성의 정도가 높다.

자료 : 제주도, 「건전 가정의례 정착을 위한 토론회」, 1996. p.18

내용별로 평균점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⑥, ⑤, ③, ④, ①, ②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도 ‘여자 문상객이 여상주마다 부조하는 행위’와 ‘남편과 아내가 따로 부조하는 행위’ 등 부조관련 행위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음식물 수가 많아 낭비가 되는 문제’가 크게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4) 특히 개선을 요하는 가정의례 문제들

제주사회에서 가정의례는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은 사회의 각급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적지 않게 개선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개선성도가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괄목할 만큼 인지되고 있지만 다른 여타 지역에서는 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6〉 특히 개선을 요하는 가정의례 문제들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정말 문제다	약간 문제다	별로문제가 되지않는다	전혀문제가 되지않는다	계
답례품 주고 받기	55.6 (381)	32.8 (225)	10.7 (73)	0.9 (6)	100.0 (685)
소기 종일 봉제	38.4 (261)	45.6 (310)	13.2 (90)	2.8 (19)	100.0 (680)
겹부조, 이중부조	79.5 (544)	16.8 (115)	3.5 (24)	0.2 (1)	100.0 (684)
과다한 음식물 제공	57.8 (396)	36.1 (247)	5.7 (39)	0.4 (3)	100.0 (685)
과다한 조화진열	65.3 (447)	29.4 (201)	5.0 (34)	0.3 (2)	100.0 (684)

주 : 1996. 7월 조사자료.

자료 : 제주도, 「건전 가정의례 정착을 위한 토론회」, 1996. p.19

〈표 6〉의 문항들은 제주사회의 가정의례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평가되어온 것들이다. ‘정말 문제다’라고 대답한 문항들을 보면 ‘겹부조, 이중부조’, ‘과다한 조화진열’ 등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과다한 음식물 제공’, ‘답례품 주고 받기’, ‘소기 종일봉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서에 관계없이 모든 문항의 내용들은 제주사회의 의례문화에서 일상화돼 온 것들이며, 어떤 것들은 최근에 조금씩 개선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말 문제다’라는 응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들은 어느 정도 개선된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들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문항의 내용들이 제주사회에서 큰 문제라는 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VI. 바람직한 가정의례 정착과 지도자의 역할

1. 바람직한 가정의례 정착운동에 대한 태도 및 행동

가정의례 영역별 세부적인 운동내용들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정도를 살펴보면,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의례 영역별 대부분이 운동 내용에 찬성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내용에 따라 인구, 사회적 변인과 같은 사회적 기반별로 찬성의 정도가 차이나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모든 내용의 개선운동에 대해 더 찬성하고 있다. 나머지 변인에 있어서는 운동내용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 여부가 달라지고 있다.

1) 바람직한 가정의례의 내용 구성

① 겹부조

겹부조(남편과 아내가 각자 부조하는 행위, 한 의례에 참여한 사람이 그 의례에 관련된 여러 사람에게 부조하는 행위)는 다른 어떠한 문제보다도 제주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사회적 관행 중의 하나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안팎부조로 부조금 지출규모가 너무 크다’는 내용을 모든 의례에서 문제시되는 항목 내용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심각한 정도를 질문하는 문항에서도 혼례시는 응답자의 83%, 상례시는 86.6%, 소기시는 87.8%가 겹부조를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이미 본 바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겹부조는 지양하고 당연히 단일부조가 정착되어야만 한다. 특히 겹부조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보편화된 부조형태라는 점에서 개선의 주 대상은 여성에 되어야 할 것이지만, 남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특히 여성(부인)의 경우 상례와 소기시에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여상주에게 부조를 하는 것이 매우 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현행 방식은 남편과 아내가 부조금을 통일하여 영전에 단상부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혼례에서도 남편과 부인이 각자 부조하는 방식에서, 접수대에서 단일부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② 음식물

“음식물 종류가 많아 낭비가 된다”는 점은 문제시되는 이례별 항목 내용들이 우선순위 평가에서 두번째로 열거되고 있다.

음식물 접대자체가 문제된다기 보다는 제공되는 음식물 수가 지나치게 많아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과 이로 인해 의례를 행하는 쪽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상례시에 돼지를 잡고 술과 함께 대접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간단하게 차 한잔으로 하는 것이 상례를 치르는 집이나 문상객들에게 좋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혼례의례시의 경우는 '국수'라든가 간단한 식단의 음식도 괜찮다고 생각된다.

③ 답례품

앞에서 본 겹부조, 음식물과 더불어 답례품의 문제 역시 제주사회에서 개선되어야 할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의례를 행하는 입장에서는 답례품이 음식물과 더불어 비용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답례품을 받는 쪽에서도 경조비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답례품 문제는 다른 내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것 중의 하나로 평가되지만 답례품 항목에 한정시켜 보면 혼례에서는 68.4%, 상례에서는 68%, 소기에서는 70.1%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바람직한 가정의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답례품은 없어야만 할 것이다.

④ 소기의 봉제

소기의례를 하루 종일 지내고(전날 음식 준비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소요되는 셈이다) 문상객을 받는 사회적 관행은 다른 지역사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중의 하나이다.

소기의 하루 종일 봉제는 소기의례시에 나타나는 다른 내용들과 비교해 볼때 심각성의 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이 자체만 국한시켰을 때는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기가 망인에 대한 의례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라면 가족과 친척만이 참여하여 야제로 지내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음식 제공에 따르는 비용과 두 해에 걸쳐 동일한 의례(상례와 소기) 참여로 인한 문상객의 시간 손실과 부조금 가중 문제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소기는 야제로 봉제해야만 한다.

⑤ 화환(조화 포함)

상례시 접수, 진열되는 조화의 수는 다른 의례에서 진열되는 화환수의 2~3배에 거의 가깝다. 더욱이 소득과 재산이 많을 수록 진열되는 조화의 수는 많아지고 있다. 혼례시에는 70.2%, 상례시에는 75%의 응답자가 화환의 과다한 진열이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상층집단의 과다한 화환 진열은 '있는 자의 세력과시'로 인식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생각할때 화환도 정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훨씬 더 줄여져야만 할 것이다.

⑥ 상례 및 혼례기간

육지의 2~3일간과 비교하면, 제주지역에서의 상례기간은 평균 4.4일로 매우 길다. 4~5일장을 행하는 사람들은 43.3%에 이르고 7일 이상을 행하는 사람만도 12.2%에 이르고 있다. 근 60% 이상이 이러한 장례기간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3일장을 적절한 기간으로 보는 사람이 77.8%에 이르고 있음을 볼때에 이 문제도 반드시 고쳐져야만 할 것이다. 또한 혼례기간을 육지의 경우 1일로 하는 것에 비해 제주지역은 3일로 하는 관행이 보편화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허례허식과 과소비 문화는 21세기를 앞둔 현 시점에서 볼 때 미덕이라고 할 수 없다. 시대가 변한 만큼 혼례기간도 1일로 줄여 바람직한 가정의례를 속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표 7〉 가정의례에 관련된 운동내용에 대한 태도

(단위 : %, 점수)

구 분	적극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반대한다	절대로 반대한다	계	평균
〈혼례 의례〉						
① 잔치기간 줄이기	36.6	49.6	12.6	1.2	100.0	3.22
② 화환 수 줄이기	49.3	48.9	1.6	0.2	100.0	3.47
③ 자택과 음식점 중 한곳서 대접	30.5	47.7	16.7	5.1	100.0	3.03
④ 예물 수 줄이기	58.5	41.0	0.4	0.1	100.0	3.58
⑤ 예단 수 줄이기	62.0	37.9	0.1	-	100.0	3.62
⑥ 혼수품 간소화 하기	63.4	35.9	0.5	0.2	100.0	3.63
〈상례 및 소기의례〉						
① 상례기간을 3일장으로 하기	34.8	48.9	12.7	3.6	100.0	3.15
② 상례시 조화 수 줄이기	48.5	49.5	1.9	0.1	100.0	3.46
③ 부조를 상부조로 단일화하기	59.6	36.7	3.3	0.4	100.0	3.55
④ 굴건제복의 상복 현대화	20.4	41.5	27.2	10.9	100.0	2.71
⑤ 기관, 단체명의 신문부고 않기	49.9	45.6	3.8	0.7	100.0	3.45
⑥ 개인, 가족명의 신문부고 않기	50.1	44.7	4.4	0.8	100.0	3.44
⑦ 소기 야제 지내기(친척중심)	32.9	41.8	20.5	4.8	100.0	3.03
〈공동사항〉						
① 답례품 안주기	45.8	37.0	14.5	2.7	100.0	3.26
② 음식대접을 국수로 간소화	29.5	47.4	18.2	4.9	100.0	3.02
③ 식사대신 음료수로 접대하기	7.1	23.0	37.3	32.8	100.0	2.04
④ 부부참여시 단일 부조하기	60.7	33.2	5.6	0.5	100.0	3.54

주 : 내용별 점수의 범위는 1~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찬성의 정도가 높다.

자료 : 제주도, 「건전 가정의례 정착을 위한 토론회」, 1996. p.20

2. 바람직한 가정의례 정착을 위한 운동주체

바람직한 가정의례 정착운동의 추진 주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운동을 이끄는 개인이나 집단의 실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주민들과의 친화력을 형성함은 물론 운동의 정당성을 주지시키고 사회성원들로부터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행위 규범의 정착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당성, 자발성, 내면화, 그리고 보상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주민들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단체나 지도자가 운동의 주체로 설정되어야 함은 지극히 온당한 일이다.

〈표 8〉은 “가정의례 개선 운동을 할 때 중심이 되어야 할 기관이나 단체를 가장 중요한 것 부터 5개만 골라 숫자로 적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우선순위를 5점 만점으로 평균점수화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표 8〉 가정의례 개선운동시 중심이 되어야 할 기관이나 단체의 우선순위

(단위 : 점수, %, 명)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CM	3.1 (274)	3.7 (634)	3.2 (470)	2.5 (258)	2.2 (66)	2.4 (333)	2.9 (27)	3.3 (387)	3.0 (544)	2.7 (310)	3.4 (81)	3.0 (196)
T%	10.6 (705)	36.7 (730)	6.4 (715)	1.4 (709)	1.1 (702)	4.6 (721)	15.3 (703)	11.6 (711)	11.6 (722)	5.5 (723)	1.6 (701)	7.7 (731)
TM	1.2	3.2	2.1	0.9	0.2	1.1	0.1	1.9	2.3	1.1	0.3	0.8

주 : 1) ① 노인회 ② 부녀회 ③ 청년회 ④ 새마을지도자 ⑤ 각종 종교단체 ⑥ 방송, 신문 ⑦ 향교, 유도회 ⑧ 도청, 시군청 ⑨ 읍·면·동사무소 ⑩ 각종사회단체 ⑪ 학교 ⑫ 행정기관

2) (CM) : 해당 내용을 선택한 사람들을 기초로 한 평균점수

(T%) :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여 전체 응답자들을 기초로 얻은 1순위 빈도 분포

(TM) : 해당내용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여 전체 응답자들을 기초로 하여 얻은 평균점수,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0점으로 처리하였다.

3) 점수의 범위는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순위가 높다.

바람직한 가정의례 정착과 지도자의 역할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지역 새마을 부녀회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부녀회 조직은 비공식적, 자발적 결사체적인 성격을 갖는 것인데 가정의례의 간소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도청이나 각급 시·군청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지역청년회와 읍·면·동사무소가 바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행정기관인 도·시·군청과 읍·면·동사무소는 모두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내 비공식적 조직인 부녀회, 청년회와 더불어 가장 호소력있는 운동의 주체로 설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은 평균점수와 더불어 응답자 수이다. 가령 부녀회의 경우 634명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응답자 732명 가운데서 86.6%인 634명으로부터 운동의 주체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읍·면·동사무소는 청년회나 도·시·군청보다 평균 점수에서 낮은 위치에 있지만 응답자 수에 있어서는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평균 점수가 지지의 강도를 의미한다면 응답자 수는 지지의 보편성 혹은 일반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선택받고 평균 점수가 높은 기관 혹은 단체가 개선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바람직한 가정의례를 정착시키는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정의례 개선 운동의 성공스런 정착과 성과를 위해서 행정기관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의례 간소화 운동에 있어서 도·시·군청과 읍·면·동사무소를 포함한 행정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위치지워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중의 하나이다. 앞에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사람들로 부터도 주체의 우선순위에서 2~3위로 평가되고 있어 그 역할이 결코 과소 평가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은 다른 자발적 단체와 달리 체계화된 조직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성취 능력과 의지가 강한 조직이면서 간소화 운동에 있어서 다른 단체들의 목표성취를 지원하거나 하위 지역 단위들을 묶어주고 조정해주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은 가정의례를 간소화시키는 운동에 있어서 단지 지원하는 위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조직기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다른 자발적 단체와 연대하여 현장 전면에 서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운동과 달리 이 분야와 관련된 운동에서는 이른바 '정부주도형 운동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경계'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며 이를 의식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가정의례별 세부 내용에 대하여 심각성의 정도가 크다고 평가를 하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운동주체 우선순위에서도 행정기관을 앞 순위 그룹에 위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은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와 더불어 개선운동 추진에 있어서 최일선에 서야 할 단체 및 기관으로 평가된다.

3. 바람직한 가정의례 정착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

가정의례 개선운동은 무엇보다도 도민 개개인의 의식 전환을 필요로 하고 또한 이를 전제로 한다. 요즘처럼 국제화와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생활과 의식을 개혁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생활의 합리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정의례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앞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응답자 대부분은 현행 가정의례의 내용이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식의 차원에서 보면 운동의 전제 조건은 상당히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소화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천과 연결되려면 사회적 차원에서 가정의례를 개선하고자하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등 사회성원 개개인들이 행동화 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의식전환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포함한 사회의 지도자들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노인회, 바르게살기, 청년회, 해녀회, 어촌계, 식생활개선 등 모든 단체의 지도자를 뜻한다.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단체장들이 어떤 사고와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단체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해당지역과 제주도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가정의례를 정착 시키는데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고 성공 실패가 좌우 될수도 있다. 또한 지도자는 대외적으로 명성있는 고위급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힘쓰기 전에 먼저 가정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해당지역(마을)에서 신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일반적인 지도자상이 있겠지만 논문작성자 나름대로의 몇가지 덕목을 적어 보고자 한다.

첫째, 지도자는 언행일치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말재주가 청산유수라 할지라도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을때 그 지도자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한 예를 들자면 94년에 강정동에서는 1·2·3통 통장과 부녀회, 노인회를 중심으로 가정의례 간소화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부조금 단일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간담회를 모이고 홍보발송을 하는 등 간소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 시켰었다. 그러던 중 강정 노송경로당 총무인 고모씨 모친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강정동의 모든 단체장들이 계도방문을 하고 부탁을 드린 결과 그 가정에서는 문중회의를 한 후 쾌히 승낙을 하여

부조금을 하나로 준비하여 상에 올리도록 시도하여 60%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통장(새마을지도자)의 장인이 사망하였다. 통장은 통을 대표하는 지도자이고 간소화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부조금 단일화는 당연히 시행할 것으로 주민들은 믿고 있었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상주마다 답례품을 준비하고 개인부조를 받아 버리므로 부조금 단일화 운동은 무산되어 버렸다. 지도자가 입으로는 간소화를 말하면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설과 비협조로 더이상 계도할 수 없게 된 추진위원회에서는 가정의례 간소화 운동을 거기서 멈추고 말았던 것이다. 물론 리더쉽도 갖추고 경제적인 바탕도 단단하고 지식적으로도 유능한 사람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우선 지도자는 보증수표만큼이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도자는 성실해야 한다.

산다는 것은 일한다는 것이며 활동한다는 것이다. 서귀포에 가려고 버스를 타보면 사람들이 차 안을 가득 메우고 있다. 왜 버스를 탔느냐고 묻는다면 저마다 대답할 것이다. 학교 가기 위해서, 혹은 시장 보러 가는 사람, 또는 병원에 가는 사람 등 모두가 일하기 위해 가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분주하며 무슨 일에 있어서 부지런 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며,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하느냐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누군가가 일생동안 가슴속에 간직하고 항상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성실'이라고 대답하겠다. 동서고금의 위대한 사상가와 위인들도 성실의 원리를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성실의 성(誠)자의 구조는 정말 의미심장하다. 말씀 언(言)변에 이를 성(成)자가 결합한 자이다. 그야말로 '성'자의 참 뜻이라 여겨지며 절로 고개가 수그러진다. 남을 속이지 않고 나를 속이지 않는 것, 모든 일에 성실한 정신과 성실한 태도로 충성껏 하는 것이 성실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농부의 얘기 하나를 들어도 정성껏 듣고, 상대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시간과 약속을 정성껏 지키며, 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닌 사람의 전화 한 통을 받아도 정성껏 받는 것이 지도자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째, 지도자는 감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의보감의 설명을 빌리지 않더라도 한약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다는 것은 모두가 공인하는 바이다. 이 한약이란 것이 한 두가지 약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십종의 나무 뿌리와 잎과 열매들을 합쳐놓은 것이므로 그 중에는 맛으로나 성분으로나 화합될 수 없는 약초들이 섞여 있게 마련이다. 이 화합될 수 없는 약초속에 감초를 넣음으로써 부작용을 없애고 단맛을 내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좋은 한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한약에는 반드시 감초가 들어가야만 하며 감초가 아니면 한약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마다의 재능과 성격과 색깔이 얼마다 다양한가? 고집이 센 사람, 협조보다 비아냥 거리를 일삼는 사람, 지식이 있다고 고개가 꺾뻗은 사람, 돈을 좀 가졌다고 목청이 큰 사람, 모든 일에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 등, 하지만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 속에 감초와 같은 지도자가 함께 섞이므로 함께 화합하고 조화를 이룬다면 목적하는 바를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특정인에만 그리고 특수지역에만 필요한 지도자가 아니라 감초처럼 모든 회원과 지역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마다의 의견과 생각과 재능은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사용되어야만 한다. 조화하지 못하는 지식이나 주장은 분열을 자아낼 뿐이다. 마치 한 그루의 나무가 흙과 습도와 온도의 조화를 이루어 거목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지도자 역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병든 사회가 치유되며 건강한 사회로 변할 것이다.

Ⅶ. 구체적 성공 사례

서귀포시 생활의식 추진위원회에서는 94년부터 '서귀포 여성은 변하고 싶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가정의례 간소화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서귀포시의 경우 '소기를 야제로 봉제하기'는 이미 정착이 되었으며, '집들이 안 하기'도 거의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부조금 단일화'는 시행되지 않으므로 인해 지난날 기쁨과 슬픔을 정겨운 마음과 일손으로 나누어 왔던 경조사와 아름다운 풍습이, 이제는 돈이나 물질을 나누는 풍습으로 변질되면서 가정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음을 사람마다 인정을 하면서도 관행의 뿌리가 너무 깊다보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누군가가 앞장서 주기만을 바라는 실정이었다.

대천동 가정의례 간소화 추진위원장인 논문작성자는 동사무소와 의논한 후 바람직한 가정의례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소집하기로 결심했다.

1. 단체장 회의 개최

1996. 3. 21. 대천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대천동 관내 단체장(통장, 새마을부녀회장, 청년회장, 노인회장, 원로회장, 바르게살기위원장, 어촌계장, 해녀회장) 및 시의원, 서귀포시 생활의식 추진위원장, 서귀포 시청 복지과 직원을 참석케 한 후 '서귀포시 가정의례 이대로 좋은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 결과 생산성이 없는 낭비적인 요소들

은 하루 속히 없애고 바람직한 가정의례를 정착시켜 앞서가는 대천동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 항목을 결의했다.

1) 부조금 및 답례품 단일화

서귀포시의 경우 여성들은 상주 숫자에 따라 부조를 하는 관행이 뿌리깊게 박혀 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빚을 내면서라도 꼭 개별부조를 하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부담스러우면서도 체면때문에 하는 것이다. 열 상주한테 부조를 하고 답례품도 열개를 가져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졌다. 또한 문상을 갔으면서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의 모습은 찾아 볼수도 없다. 상주별로 부조를 주고 재잘거리며 음식을 먹은후 답례품을 주렁 주렁 손에 들고 오는 것이 전부이다.

문상을 갔으면 영전에 애도의 뜻을 표하는 예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조금은 하나만 준비하여 상에 놓고 반듯이 여성들도 영전에 묵념, 혹은 절을 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간단한 답례품 하나 정도는 주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에 따라 대천동 경우 답례품도 하나만 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결의했다.

2) 음식물 간소화

옛날부터 문상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의 뜻과 상주들에 대한 위로의 뜻을 담고 있었다. 따라서 문상객들은 상 앞에 이르러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며 상주들에게 위로의 말과 부조를 하며 혹은 상주를 위하여 함께 밤을 새워 주는 등의 일을 포괄하고 있었다. 특히 사돈 집에서는 성복시에 팔죽을 쑤어다 주었는데, 이것은 원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끼니를 끓여 먹지 않는 것을 걱정하여 소화시키기 쉽도록 죽을 쑤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은 어떠한가? 성복시에 각 사돈들마다 다른 사돈앞에 뒤질새라 부랴부랴 라면을 비롯하여 음료수, 술, 팔죽 등을 쑤어 오다보면 죽이 아니라 된 밥이 되어 버리가 일쑤이고, 한 차례 먹고 나면 배가 불러 먹을 수도 없는 팔죽을 사돈들마다 계속 가져오니, 억지로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자니 사돈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이고 난처할 수 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어찌란 말인가? 결국은 버리게 되다 보니 인력낭비에 돈 낭비일수 밖에……. 그리고 슬픔을 당한 집에서 실컷 먹고 마시는 일은 예의도 아닐뿐 더러 보기에 좋지 않으므로 술은 아예 준비하지 말 것이며, 음식도 간단한 국수로 하여 돈과 음식물 쓰레

기를 줄이기로 결의했다.

3) 웃놀이 안 하기

대천동의 경우 상례를 치르는 집 마당에서 웃놀이 판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오락으로 관행이 되어 왔다. 하지만 슬픔을 당한 상주들을 위로하고 심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온당한 일이지 마당에서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면서 웃놀이를 하는 일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며, 웃을 하는 사람들이 2~3일 동안 보통 돼지 한마리 정도를 소비하는가 하면, 가정에 돌아가서는 돈을 잃고 왔다고 가정싸움까지 생기는 일이 흔하므로 화투, 웃놀이 등 낭비성 오락은 삼가하기로 결의했다.

4) 장례준비 및 비용 합동으로 부담하기

제주도는 옛부터 균분상속제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것 같다. 제주의 방언이며 속담 처럼 전해 내려오는 “짓갈른 강생이 초록, 애애 : 성제가 하영 이서도 위세뿐이라”, “다 질로지만씩 살아야메!”, “에비 아들간 범벅도 그뭇그성 먹으렌해서”라는 말처럼 공동으로 함께 라기 보다는 각자 따로 따로를 더 선호해 온것이 사실이다. 그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상례의례에도 일포는 큰 아들이, 돼지는 작은 아들, 장례날 조반은 큰 딸, 점심은 작은 딸, 이런 식으로 부담시켜 행해 왔다. 이럴 경우 일포를 맡은 큰 아들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각각 일포 하루 전날에 돼지를 잡고 음식과 답례품을 준비하여 빈소도 없이 문상객을 받아 왔었다. 이 폐단을 없애지 않는 한 부조금 단일화는 불가능한 일기에 모든 상주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음식도 한 집에서만 준비하여 문상객도 빈소가 있는 집에서만 받음으로 경비도 절약할 수 있고 부조도 상부조 하나로 하자는 뜻에서 합동으로 준비하기로 결의 했다.

5) 집들이 부조 안하기

집들이때 부조를 하는 지역은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있는 풍습이다. 그래서 돈으로보다는 마음을 주고 받는 미풍을 정착시키기로 결의했다.

2. 홍보운동 전개

1) 홍보 방문

96. 4. 1~30 까지를 홍보 기간으로 정한 후 앞에서 결의한 다섯개의 항목과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하게 협조문을 제작 인쇄하여 각 가정마다 우편으로 보내고, 대천동 관내 전 가구를 각 통별로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방문하면서 홍보활동을 했다. 특히 4월 한달동안 홍보한 후 5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분명하게 전하면서 적극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2) 홍보방송

대천동 관내 각 마을(강정, 도순, 월평, 용흥, 신시가지)별로 마을 앰프를 통해 한달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홍보방송을 실시했다. 특히 주민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부녀회장, 통장, 노인회장, 청년회장 순으로 번갈아 가면서 방송을 했다. 가정의례 운동을 부녀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모든 단체가 함께하고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였다.

3) 각종 회의시 홍보활동

각 마을 단체장께 각종 회의때 마다 간소화 운동을 홍보하고 앞장서 줄것을 부탁하고 그 대로 시행했다. 개발위원회, 반사회,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해녀회, 어촌계 등 모든 각종 회의의 및 월례회에서 가정의례 간소화 문제를 다루게 하고 모든 회원들이 따를 수 있도록 설득 시켜가면서 추진해 나갔다. 특히 노인회에서는 한달에 2회 모이는 회의시마다 노인회장이 회원들에게 젊은 사람들의 말보다 노인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듣기 때문에 자식들 앞에 아예 간소화 운동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제시하면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3. 계도활동

1) 1차 계도방문

계속되는 방송과 홍보 방문으로 주민 모두에게 홍보가 된 96. 6. 30. 강정동 고 모씨 장모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일인만큼 어려움도 예상되었지만 언제

고쳐도 고쳐져야만 할 관행이기에 나는 강정동 노인회장, 통장, 통 부녀회장, 청년회장에게 연락 한 후 함께 계도를 위한 방문을 했다. 그 집의 경우 상례를 치루는 집은 아니었다. 상가는 서귀포이고 딸이 강정에 시집와서 사는데, 딸이 장례식날 점심을 맡아 차려가게 되어서 이제껏 해 온 관행대로 일포전날 음식과 답례품을 준비하여 빈소도 없는 집에서 문상객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방문목적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난 후 강정에서 문상객을 받아 버리면 부조금 단일화가 되지 않으므로 강정에서는 음식도 장만하지 말고 혹 문상을 원하는 분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귀포 상가로 가서 상부조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렸다. 그러니 그분의 말은 음식 준비하는 것은 문상객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친척들이 오면 그냥 보낼수 없기에 간단한 우동이라도 준비하는 것이라면서, 이제까지 계속 홍보활동을 했는데 문상객들이 오겠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그렇다면 대문 밖에서 친척이 아닌 문상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막아서는 것도 좋고 홍보를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다음날 아침부터 통장, 1·2·3통 부녀회장과 함께 나는 대문 밖 50m거리에서 홍보활동을 했다. 부녀회에서 막는다는 소문이 나돌자 많은 사람들이 아예 문상을 포기했으며, 모르고 왔던 사람들에게는 일포날 상가로 가서 상부조로 하도록 설득시켜서 모두 돌려 보냈다. 일이 이쯤되자 화가 난 사람들은 그쪽사람들이었다. 문상객들에게 부조를 받으려고 답례품과 음식을 준비해 놓았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니 화가 날수밖에……。 지켜서 막아도 좋다고 허락은 했지만 설마 오는 사람들을 돌려 보낼줄은 예상치 못했던 모양이었다. 그집 친척중 한 분이 나를 좀 보자고 해서 갔더니 욕을 하는 것이었다. 부녀회장이면 폐품이나 수집하고 마을안길 청소나 할 일이지 남의 집 대사에 끼어들어 일을 망치게 한다면서, 이제라도 중단하고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허나 나도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었다. 모든 단체장들이 찬성한 일이고, 주민들도 원하는 일이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인데, 그리고 이제까지 집집마다 방문하여 홍보하랴, 방송하랴, 얼마나 시간적·정신적 투자를 많이 했는데 중단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누가 희생당해도 당할 일이고, 욕도 당연히 들어야 할 일이기에 나는 모든것을 각오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물러서지는 않겠습니다. 용서 하십시오.”라고 죄인처럼 대답하고 저녁 9시까지 지켜서서 계도 활동을 했다.

그 결과 성공율은 80%였으며 그날 후로 강정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상례시는 상부조 하나만 해야 되는 것으로 굳혀지기 시작되었다.

2) 2차 계도방문

두번째로 장례가 생긴 집은 강 모씨 댁이었다. 그집 조부님이 돌아가신 것이다. 그 집안은 상주가 10명이다 보니 사돈이며 친척들이 매우 많은 편이었다.

지난 번에는 한 분의 상주를 설득시키기도 힘들어서 대문 밖에 지켜서는 소동까지 벌였는데 그 많은 상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난감하기만 했다. 나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강정동 각 단체장들에게 연락한 후 함께 계도 방문을 갔다. 먼저 준비해간 향과 양초를 시신 곁에 놓고 돌아가신 분의 명목을 비는 마음으로 묵념을 하며 애도의 뜻을 배 한 후에 조심스럽게 방문 목적을 말씀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렸다. 그랬더니 그 분들도 많이 생각해 보았다고 하면서 가정의례 간소화는 좋은 일이고 고쳐져야만 할 일이므로 자기네가 먼저 본을 보일테니 밖에 지켜서지는 말고 입간판이나 하나 준비해서 놓아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입간판(우리 마을은 여성들도 문상시 상부조 하나로만 하고 있습니다.)을 제작하여 일포 날 아침에 그 집 대문 입구에 세워놓았더니 모든 주민들이 부조금을 하나만 준비하여 상에 놓는 것이었다. 특히 그 집에서는 사돈집에까지 전화를 걸어 상주는 10명이지만 부조는 한개만 준비하라고 미리 말씀 드려서 부조금 단일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므로 모든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듣기도 했다.

이렇게 한 집에서 단일화를 시작하니 다음부터는 저절로 되었다.

세번째 김 모씨, 네번째 윤 모씨, 다섯번째 조 모씨, 여섯번째 오 모씨, 모든 집에 방문을 갔는데 ‘음식물 간소화’와 ‘부조금 단일화’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주민들 역시 언제 개별부조 했느냐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상부조 하나만 하기에 이르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간소화 운동을 추진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다.

〈표 9〉는 강정 1·2·3통 부녀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가정의례간소화가 정착된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 자료이다.

〈표 9〉 가정의례 간소화 정착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구 분	매우 좋다	약간 좋다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부조금 단일화	92	3	1	4
답례품 단일화	93	3	2	2
음식물 간소화	80	10	1	9
집들이 안하기	92	5	0	3

주 : 부녀회원 1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내용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내용에서 90%이상이 가정의례 간소화가 정착된데 대하여 좋다고 응답하고 있다. 응답범주 ‘매우 좋다’와 ‘약간 좋다’를 합하면 ‘부조금 단일화’ 95%, ‘답례품 단일화’ 96%, ‘음식물 간소화’ 90%, ‘집들이 안하기’ 97%가 좋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가정의례 간소화 운동의 시행전과 시행후의 성과에 대해서 비교해 보기로 하자. 다음의 〈표 10〉은 7개월 동안의 간소화 운동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녀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자료이다.

〈표 10〉 7개월간 가정의례 간소화 운동에 대한 성과 (단위 : 명, %)

내용		시점	시행전	시행후	증감여부
상주별 개인부조	한다		100	3	-97
	안한다		0	92	+92
	사돈, 친척일 경우 개인 부조한다.		95	5	-90
소기를 야제로 전환	종전대로 하고 있다.		100	0	-100
	야제로 지내고 있다.		0	12	+12
	지금은 없지만 소기가 생기면 야제로 하겠다.		0	88	+88
답례품	상주 숫자대로 준비하고 다 받겠다.		100	2	-98
	하나만 준비하고 하나만 받겠다.		0	98	+98
집들이	축하객을 받겠다.		90	0	-90
	안 받겠다.		10	100	+90
영전에 재래 혹은 묵념	안한다		92	10	-82
	한다		8	90	+82

주 : 부녀회원 1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내용

〈표 10〉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시행전과 시행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부녀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젊은층이 많아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본다. 짧은 7개월 동안에 이처럼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이 변하였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의례 관행이 고쳐져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면서도 체면때문에 허례허식적 관습에 사로잡혀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허례허식적 가정의례 관행으로 인한 과소비 비용도 엄청난 것으로 예상된다.

강정의 경우 5월 ~12월 사이에만 상례를 여덟가정이 치루었는데 5월 이전까지를 합한다면 열 가정은 넘을 것이다. 1가정에 상주 5명으로만 계산해도 10가정이면 50명이고 여기에 20,000원을 곱하면 1,000,000원이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1가정에서 1년에 지출되는 상례 부조금은 1,000,000원이었는데 부조금 단일화가 정착된 지금은 800,00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외에 담뱃품 단일화, 음식물 간소화, 소기를 야제로 봉제, 집들이 안하기로 인하여 절약되는 비용까지 합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절약되는 셈이다.

제주도는 상례의례시 관행을 간소하게 개선한다면 연간 180억원이라는 돈이 절약될 수 있다는 통계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가정의례가 정착되었을때 실제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은 그 몇 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VIII. 결 론

제주도에서는 96년을 가정의례 정착의 해로 정하고 모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MBC TV에서도 매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가정의례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MBC TV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며 나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이웃과의 관계 때문이다. 내가 먼저 부조금을 받아 버렸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 누군가가 앞장서서 욱을 먹으며 추진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일을 바로 지도자(단체장)들이 읍·면·동사무소와 함께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을마다, 통마다 한 가정만 모범을 보여주면 저절로 되는 것이다. 만일 첫번째 집이 '부조금 단일화'를 시행 했음에도 두번째 집에서 안 했을 경우 그 집은 주변 사람들로 부터 욱을 듣고 미움을 받게 된다. 그만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조금 단일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서귀포시의 경우 동새마을 부녀회장이 자동적으로 동가정의례 추진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각 동별로 단체장 회의를 소집하여 간담회를 갖고, 특히 '부조금 단일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어려운 이유는 홍보가 미흡한 탓이다. 현수막을 거는 것이 홍보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잡고 구체적으로 홍보를 충분히 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 한 번의 방문도 없었던 가정에 상례가 생겼다고 갑자기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은 예도 아니며 정착은 커녕 욱만 듣게 될 것이다. 특히 지도자(단체장)들은 21세기를 눈 앞에 둔 시점에서 고쳐져야 할 것과 선호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낡고 퇴폐한 관행들은 과감히 없애야겠다는 각오로서 앞장서 나가야 한다. 단체장의 가정에 상례가 생겼을 때 솔선하여 본을 보여 준다면 그 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라도 해도 한집~두집만 지켜서서 계도활동을 한다면 부조금단일화를 비롯한 바람직한 가정의례의 정착은 멀지않은 가까운 곳에 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윤상윤, 「가정의례총람」, 신성출판사 1994.
2. 세계화추진 제주협의회, 「세계화시대 제주인의 의식, 이대로 좋은가」, 1996
3. 제주도, 「건전 가정의례 정착을 위한 토론회」, 1996
4. 권순만, 「관혼상제 백과」, 일식서적 출판사, 1995
5. 전통예절 연구회, 「관혼상제는 이렇게」, 신나라, 1996